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이석하, 편집인 : 강규석

면 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강문성·신찬석·안동환·여환명·윤희연·  
이기훈·이은진·조철훈)

## 제25대 이석하 학장 취임



이석하 학장 취임

2017년 7월 27일 우리 대학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25대 학장으로 이석하 교수가 취임하였다. 이날 24대 학장 이임식과 25대 학장 취임식이 같이 열렸고, 성낙인 총장, 교무부총장, 본부 각 처장, 타 단과대학장, 류관희 동창회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 명예교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하여 이임을 격려하고 취임을 축하해주었다. 이석하 학장은 본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8년부터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생대 교무부학장,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 한국작물학회 회장, 세계작물학회 회장, 전국 국립대학 공실관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국 연변대학 겸임교수, 농촌진흥청 겸임연구관, 식약처 유전자제조합식품 안정성평가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 취임사

사랑하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국제농업기술대학 교직원, 학생 여러분.

제25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농생대는 11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배고픈 가운데 통일벼의 개발로 녹색혁명을, 하우스 농업으로 백색혁명, 그리고 산림녹화를 통하여 세계인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핵심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은 농업의 사양화라는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해 관악으로 캠퍼스이전과 평창캠퍼스 목장설립, 첨단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 등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농생대는 농업연구와 교육의 중요한 산실로 거듭났습니다. 2017년 우리 대학은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38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도 널리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생대는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진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은 생산, 제조, 서비스 등을 총망라한 6차 산업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 농생대는 생명, 환경 분야와 더불어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들께서 서로 깊이 이해하여 농생명융복합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의 구성원으로서 타 단과대학, 대학원과 함께 창의적으로 융복합교육을 실천하여 농생대의 새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서 서울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생대와 국농원의 미래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만의 발전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의 축적된 우리 대학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돕고 미래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농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농생대 모든 분들의 열망을 모아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농학도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장으로서 농생대 곳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학에 봉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농생대, 국농원 교직원, 학생 여러분과 함께 미래농업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칩니다.

항상 교직원,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제25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이석하

###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10면\_농기자가 간다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1면\_기금출연 소식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 신임 집행부 취임 인사



▶ **교무부학장 김관수 교수** 먼저 농생대 교무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학에서 교무행정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의 하나인 교육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유가 자동차 엔진의 원활한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듯이 대학의 교육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이 빈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무팀장 이하 교무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이러한 임무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교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교수님의 제언에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그리고 효율적인 교무행정으로 농생대 구성원 모두의 후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많은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부학장 김용노 교수**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농생대 학생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툼한 인수인계서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있지만, 후배이자 제자인 우리 농생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큰 보람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농생대는 재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함양하며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 학생부학장들과 학생행정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업들을 계승 발전시켜 농생대뿐 아니라 서울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생과 교수의 소통을 위한 상담교수제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열린 학생행정실을 통해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구부학장 장판식 교수** 우리나라의 농업 및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연구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농업은 여전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학문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며, 이에 우리 대학과 모든 구성원은 인류적, 국가적인 막중한 위치를 점유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음도 느낍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창의적이며 융·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구하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학문적 수월성을 제공받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을 통하여 연구 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행정실의 노력이 우리 대학의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게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 때로는 발전적인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부학장 강규석 교수**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기획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직기간도 짧고 부족한 제가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수님, 직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술림(수목원) 무상양여, 75동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 수원캠퍼스 리모델링 사업, 평창캠퍼스와의 유기적 협력, 시흥캠퍼스 참여 등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국제교류와 협력, 세계대학 평가 순위의 향상 등을 위하여 제 심혈을 다할 것이며, 좋은 성과로 감사에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ALS VISION 2020의 발전적 운영 및 교육·연구라는 대학 고유기능과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수익사업 개발,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학 공간 활용 등을 위한 기획 및 대책 수립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2017 농업생명과학대학장배 체육대회

지난 9월 2017년 농업생명과학대학장배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농생대 학장배 체육대회는 참가자의 심신을 단련하고 농생대인이 하나되는 친목의 장을 마련, 교류와 화합을 촉진함으로써 농생대 체육동아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2017 농생대 학장배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종목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대상은 모든 농생대 재적생, 교수 및 직원이다. 즉, 농생대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체육대회이다. 우승팀에게는 최소 50,000원부터 최대 300,000원까지의 상금이 주어진다.

교내에서 친목과 교류를 위해 진행되는 체육대회인만큼 농생대 학장배 체육대회는 몇 가지 대회 원칙을 갖는다. 첫째로는 학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둘째로 여학생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로 대회 운영 및 경기 규칙은 각 종목 주관 동아리의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하며 넷째로 폐회식에는 각 종목 우승팀의 대표자 및 선수가 참여해야 한다.

축구같은 경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축구동아리인 휘모리가 주관하였다. 기숙사운동장과 대운동장에서 총 3번의 예선전이 이루어졌고 결승전을 통해 농경제사회학부 소속의 '크리스탈 8라스' 팀이 우승을 하였다. '크리스탈 8라스' 팀은 모든 경기에서 완벽한 조직력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식물생산과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응용생물화학부 팀 등 여러 우승 후보를 모두 꺾었다.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응용생물화학부의 '레알 ABC'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축구 종목의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최도형(지역정보 15)은 "경기를 함께 하면서 소속 학부가 하나로 뭉치며 선후배 간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런 측면에서 MVP로 선정된 것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족구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휘모리가 주관하였으며, 환경재료과학 소속의 'ems' 팀과 농생명공학부 소속의 '농사꾼들' 팀 등이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다. 환경재료과학 전공의 대학원생과 두 명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ems' 팀은, 경쟁 상대였던 '농사꾼들' 팀을 예선 1경기에서 물리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농경제사회학부의 '노(老)경사' 팀에게 돌아갔다.

농구는 농생대 농구 동아리 새턴이 주관하였고 3on3로 진행되었다. 농구의 경우 한 팀마다 반드시 여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했으며 예선, 본선, 여학우 자유투로 경기가



축구 우승팀 '크리스탈 8라스'



배드민턴 여자 복식

진행되었다. 농구에서는 환경재료과학 학부생들로 이루어진 'ㅇ' 팀, 우승기록을 가지고 있는 '응생화' 팀과 'EMS' 팀 등 다양한 팀들이 우승후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작물생명과학 소속의 학부생들로 이루어진 '작물생명과학' 팀과 농생명공학부 소속의 '박사안이안이안이야' 팀이 예선과 본선에서 연이어 승리를 가져가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치열한 사투 끝에 간발의 차로 '박사안이안이안이야' 팀이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주관한 배드민턴 경기는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여자복식만으로 이루어졌다. 정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15점을 선취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었다. 밝은 분위기에서 참가 선수들의 치열한 접전 끝에 신지원(지역정보 15)과 박경주(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17)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신지원 학우는 "라켓 운동을 가장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종목이 있어서 기쁩습니다. 우승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다음번 대회부터는 여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팀과 경쟁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테니스 경기는 경영대 테니스 코트에서 남자 단식/여자 단식 경기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남자 단식은 농생대 테니스 동아리 S.A.T.C 소속 박성문(농업 · 자원경제학) 학우가, 여자 단식은 전해원(농업 · 자원경제학) 학우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 농생대 교수 정년퇴임식

2017년 9월 1일 200동 윤대섭대회의실에서 농생명공학부 이인원 교수, 농경제 사회학부 김완배 교수, 농생명공학부 최홍림 교수의 정년 퇴임식이 있었다. 이인원 교수는 1986년 본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식물병리학에 관련된 연구와 강의에 전념 하였다. 또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식물병리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법인이사,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장,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소장 등 학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김완배 교수는 1995년 본교 부교수로 임용된 후 농업경제학에 관련된 연구

와 강의에 전념하였다. 또한,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농림부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농생대 교무부학장, 평위원회 학사위원 등 학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최홍림 교수는 1994년 본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축산환경에 관련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였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관, 국회 입법지원위원, 농생대 동물자원학과장,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축산과학기술연구소장 등 학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날 퇴임식에는 이석하 학장 외 집행부 및 현직 교수들이 참석하여 정년을 축하해 주었다.



## 제10회 서울대 - 청도농대 심포지엄 개최

2017년 8월 8일 203동 101호 허영인홀에서 제10회 서울대-청도농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우리 대학과 중국 청도농업대학교 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주제를 바꾸어 양국을 번갈아가며 방문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였고, 산림환경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을 전공한 양교 교수 각각 6명씩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청도농

대 Li Baodu 당서기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2017학년도 2학기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7년 8월 28일 200동 학장실에서 2017학년도 2학기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2학기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에는 농업·자원경제학 한지연 학생이,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생에는 원예생명공학 박민정, 원예생명공학 정효봉 학생을 선정하였다. 장학생에게는 각각 졸업최우수 목운장학상 200만원, 우수학문후속세대 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석하 학장, 한인규 이사, 하종규 이사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기획부학장, 강병철, 권

오상, 윤철희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7학년도 2학기 일성장학금 수여식

2017년 8월 30일 13시부터 200동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일성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일성장학금은 일성화학 정윤환 동문이 매년 출연해 주시는 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성장학금은 학부생 원예생명공학 이지인 학생 외 8명, 대학원생 작물생명과학 현신우 학생 외 7명 총 17명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이석하 학장, 정윤환 회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기획부학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 2017년도 나형주 장학금 수여식

2017년 9월 7일 200동 학장실에서 11시 30분부터 2017년도 나형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농업·자원경제학 정요섭 학생이 선정되었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인 24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석하 학장, 나형주 학생 아버지 나준식 님, 학생부학장, 박은우 교수, 김진모 교수가 참석하였다.



##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평창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에서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를 개최하였다.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는 고등학생의 진로탐색과 학습방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평창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3명이 캠프에 참가하였다.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진로탐색 이야기, 공동체 활동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 제13회 생명공학캠프 개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대학이 주관하고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생명공학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7~9일(1기), 9~11일(2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국에서 지원한 총 5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연구부학과 서울신문사 부국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선발을 거쳐 최종 합격한 총 90명이 참가하였다. 캠프 프로그램은 서울대 농생대 교수들의 생명공학특강 및 융합특강, 실험실습, 서울대투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NIE 교육을 접목하여 청소년들의 창조적 체험과 논리적·과학적 사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참가학생들의 큰 흥미와 관심을 끌었다.



## 직원학사협의회 개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주도에서 직원학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총 86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상호간 소통과 단합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첫째 날에는 환상숲 꽃자왈공원, 쇠소깍을 탐방하고 부서 및 기관별 발표와 소개가 끝난 후 우리 대학 현안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둘째 날에는 우도, 다희연, 함덕해수욕장을 탐방하였다. 오랜만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며 농생대인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 ‘2017 CFB & GBST’ 공동 워크숍 개최

2017년 7월 10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CFB)는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과 공동으로 ‘2017 CFB & GBST’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 전임 연구원들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는데,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는 정호섭, 최주희, 반중진 연구원이, 그린바이오기술연구원에서는 식품산업화연구소의 탄한, 이태경 연구원과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의 복진덕, 두은희 연구원이 각각 최근 연구 결과와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

제발표 이후에는 연구소 참여 연구원 및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대학원생 등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을 통하여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연구협력 및 교류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농생대 사진동아리 '녹영'

농생대를 대표하는 사진 동아리로 자리 잡은 '녹영', 이번 호에서는 녹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현재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임영천(응용생물학 16)을 만나보았다.

###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녹영의 역사는 1985년도 수원캠퍼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녹영의 정식 명칭은 사진 동아리가 아닌 필름카메라 동아리였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가 시작되었고, 수원캠퍼스에서의 역사 또한 필름 사진들로 남아있다. 90년대 들어서 필름카메라의 사용이 줄고 디지털 카메라, DSLR, 휴대폰 카메라가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녹영은 종합 사진동아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필름카메라의 사용자가 현재까지 줄긴 했지만 녹영에서는 동아리의 출발점인 필름카메라를 꾸준히 다루고 있다.

###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정기출사

녹영에서는 매 학기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출사를 열고 있다. 주로 학기 첫 세미나는 기본적인 조작법을 주제로 하고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세미나를 열기보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회장단과 선배들이 세미나를 준비한다. 특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칭하는데, 사진이 빛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만큼 빛의 조정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회장단과 선배들이 카메라 사용법, 세부 기능 설명, 카메라 요소 설명, 구도 잡는 방법, 사진 보정법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출사'는 다양한 장소로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정기 출사와 소수정예로 떠나는 비정기 출사가 있다. 특히 정기 출사에서는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출사지로 알려진 경복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한옥마을 등 다양한 장소를 찾고 있다. 정기출사의 의의는 세미나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소수의 인원끼리 모여 서울 외곽으로 비정기 출사를 나가기도 하며 사진 찍는 것을 즐기고 있다.

### 사진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녹영 정기 사진전

여태까지 찍은 사진들 중 주제에 맞는 사진을 골라 제목과 설명을 덧붙여 출품한다. 품평회에서는 출품된 사진들이 전시회의 주제와 맞는지 평가하고 사진 설명, 보정 등을 적절하게 추가해 최종 전시 작품으로 선정한다. 사진전은 주로 농생대 2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고, 많은 농생대 학생들이 매 사진전을 방문해 관람하고 있다.

정기 사진전 외에도 매년 3월에 새터 사진전을 여는데, 녹영 회원들이 새내기 배움터를 찾아 풋풋한 신입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후 학기가 시작되면 새터 사진전을 열어 신입 회원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한다. 녹영 30주년에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재학생들만 참여하는 정기 사진전과는 달리, 동아리 OB선배들과 함께 외부 갤러리에서 크게 사진전을 열며 30주년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 사진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추억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임영천(응용생물학 16)은 "사진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아리에 들어와 배우다 보면 다들 재미있어 하고, 또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뿌듯해 한다."라고 말하며 사진 찍는 것의 즐거움을 전했다. 특히 "녹영에서는 필름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 DSLR, 휴대폰카메라까지 다양한 카메라를 다루고 있는 만큼 사진을 통해 기록하고 싶은 사람,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만의 컨셉과 주제를 잡아갈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며 사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해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주제의 사진전으로 농생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녹영의 모습이 기대된다. ■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5기 박유빈

##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농학 82)



서재형 동문(농학 82)

경기도는 지금까지 인구 천 3백만 명이 넘는 큰 광역도로 성장하였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녹지 공간을 잃게 되었다. 이에 푸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05년 경기녹지재단이 출범되었다. 그 후 경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소득 증대 및 유통 사업부문이

추가 되었으며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거쳐 금년 4월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도 농식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번 호에서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서재형 동문(농학 82)을 만났다.

###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서재형 동문은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생물학과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으로 농학과로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했다. 그는 대학생살을 하며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도운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재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졸업 후 한화유통에 입사했다. 입사 후 1년 동안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총무 업무를 거쳐 오랫동안 소망하던 구매직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구매직무를 맡은 뒤 첫 3~4년 동안은 식품, 주류, 음료, 커피 등의 구매를 관리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구매 중에서도 야채구매를 관리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새벽 4시에 출근해 시장을 돌고 저녁에 물류가 나가는 것을 보고 퇴근해야 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적용하며 일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IMF 사태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식품도매 오픈마켓’을 설립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2002년 6월에 한화유통으로 복직하였다. 2년 뒤에는 회사의 M&A로 인해 롯데로 직장을 옮겼고, PB 개발 마케팅 전문회사인 미국의 Daymon이라는 회사에 파견근무 하던 중에는 신선식품 PB를 개발을 담당하며 여러 상품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롯데로 돌아와 점포기획, 매장설계, 마케팅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다가 올해 2월 롯데를 퇴사한 후, 7월 10일자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으로 부임했다.

### 경기도 농식품의 미래를 키우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원’)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유통 및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유통원은 경기도 농식품 공급 및 유통체계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식품 홍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경기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브랜드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경기도 농특산물 박람회와 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며, 주요 업무인 유통 및 홍보 관련 사업 외에 귀농귀촌지원, 도시농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이래로, 유통원은 도내 농식품 유통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재형 동문은 “경기 농식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으로서의 목표

서재형 동문은 앞으로 유통원의 입지를 굳히고, 기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유통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는 특히 “해마다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는 쌀의 특색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농가의 규모별로 각기 다른 유통 채널을 개척하며, 경기도 농식품 및 특산물을 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현재 유통원의 가장 큰 목표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여러 대형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통을 위해서는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객들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꿈에 대해 언급하며, “나중에는 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기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클라우드 펀딩, 농사 펀드와 접목시켜보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다.

### 농생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서재형 동문은 농생대 학생들에게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세상 밖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농생대의 교육 체계가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현재는 산업에 소비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농업 외적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마케팅, 경영 과목을 배워보면서 폭넓게 경험하고 공부해보는 농생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제6기 박유빈, 제6기 송이레

##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 스무번째 주인공은 식물생산과학부 백남천 교수!



백남천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백남천 교수는 1985년 우리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에 진학하여 1994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Iowa State 대학, USDA 미국 농무성 박사 후 연구원을, 1997년 금호생명환경과학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였다. 1998년 9월 본교에 취임을 하여 지금까지 연구와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환경 기후 변화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심해져 토양 염분화가 많이 진행된 지금, 이에 저항성이 있는 식물의 유전자를 찾는 것이 그의 주된 연구 분야이다.

####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남천 교수는 스스로 과학적 소양이 강하다고 생각해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한다. 특히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을 변화시켰던 통일벼를 보고 육종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농학과로 진학하여 육종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생각하였던 학문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학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 오게 되었다.”고 전한다.

####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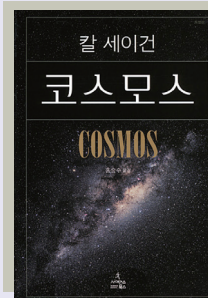
백남천 교수는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보냈다. 그는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수원 캠퍼스에서 대학을 다니며 대학생활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넓은 인간관계를 쌓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대학 생활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 학생들에게 한마디

백남천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성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돈과 성공이 아닌,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나도 방향도 하고 놀기도 했지만 대학원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했던 것을 공부하니, 힘들긴 했지만 어느 순간 잘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교수는 끊임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세상은 녹록치 않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는 응원을 전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의 장이다. 동료, 교수, 후배, 선배 등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 도서 추천



#### 『코스모스(Cosmos)』 (저자 : 칼 세이건(Carl Sagan))

백남천 교수가 추천한 책은 칼 세이건(Carl Sagan)의 <코스모스(Cosmos)>. 이 책은 우주의 탄생,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을 가진 생명이 되는 과정 등이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다. 은하계 및 태양계의 모습, 별들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밝혀낸 과학자들의 노력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우리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지, 우주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등의 철학적 질문도 함께 던진다.

백 교수는 이 책이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인문소양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1983년,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후 겨울방학 때 진로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이 책을 처음 접하였는데, 책을 읽고 매우 감동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백 교수는 “이 책을 읽고 우리는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인간의 역사 역시 전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아주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간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또 백 교수는 “농생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연과학적 지식과 함께 인문적 소양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백남천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현진호 교수이다. 현진호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학생기자단 제6기 김수연, 제6기 송이레



〈2017. 06. 30 경인일보〉

## 하수처리수 · 빗물 등 재활용... ‘무한대 순환 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이 수자원 강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중심으로,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를 활용한 물 재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 재이용의 핵심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활용하는 것. 하수처리수를 농업·공업·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면 물을 무한대로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625곳의 하수처리량은 연간 70억 517만 9천t으로 재이용률은 14.7%수준이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변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도 “중금속 기준을 충

족하는 하수처리수는 충분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수질 기준이 명확해지면 재이용수는 농민들의 물 부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를 활용한 물 재이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다. 연간 388억t의 빗물이 버려지고 있고, 빗물 저류조와 중수도 시설 설치의 물론 활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수 분야부터 도내 모든 용수원(하천·하수처리장 등)과 저수지 등 물그릇을 잇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언 기자

〈2017. 07. 28 조선일보〉

## “미래 먹거리 산업 이끌 푸드테크... 농식품 IT인재 키워야”



김관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 시대 핵심 기술이 융합돼 식품 생산부터 가공·포장·유통 등 거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저렴하면서 맛있는 인공 소고기나 인공지능 로봇 요리사처럼 식품 산업에 IT(정보기술)를 접목한 푸드테크(food tech)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푸드테크는 해마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저렴하면서 양질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스마트폰 배달앱처럼 외식·배달 분야의 IT 활용도는 높지만, 식품 생산에서는 여전히 기존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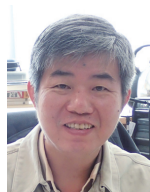
이어 “미국에서는 최근 콩 등 식물 재료로 만든 인공 달걀까지 출시됐지만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질 때마다 달걀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IT가 강조돼 있는 것과 달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식품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게 아쉽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농식품 산업에 활용할 IT 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2017. 09. 04 농민신문〉

## 스마트팜 시설 보급만으로 부족... 농업 데이터 분석·활용체계 확립해야



전문가들은 농업분야에 4차산업 기술이 안착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설 보급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데이터 활용방안과 한국 농촌실정에 맞는 기술을 찾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생산·유통·소비를 아우르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적절하게 유통·소비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중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교수는 “결국 4차산업 기술은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라며 “농촌속 박이나 마을단위 농업용수 관리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 스페이스젤리 대표 김지훈 (원예생명공학 박사과정 16)



김지훈 대표

수원 농생대 부지에 있는 경기상상 캠퍼스.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농생대 창업경진대회에서 '나만의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 테라리움'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페이스젤리'가 입주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스페이스젤리의 김지훈 대표를 만나보았다.

**농기자** 안녕하세요.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대표(이하 김)**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생명공학전공 시설원에 및 식물공장학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스페이스젤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스페이스젤리는 우주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주농업 분야의 회사입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식물을 오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우주농업 콘텐츠로 학생 교육이나 문화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기자** 창업계기와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 석사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성격이 자유분방하다보니 창업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 농생대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심사를 받고 합격해 입주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원 농생대 부지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오래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식물을 오래 키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기반을 두어 LED, 화학성분, 센서를 이용해 한두 달은 물 없이도 자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우주에서 왔다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1년에 8만 마리의 유기견이 생기는 등 안타까운 문제를 보면서 반려식물로 대체해보고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도 주고 교감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옆에 잘 살아 있어주는 것이 키우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기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젤리

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김** 저희는 많은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스페이스 가든: 인생사진관'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주, 정원, 식물을 배경으로 한 스튜디오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전거에서 음료,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직접 수경 재배한 민트를 이용해 모히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한 식물을 넘어 차별화를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이는 유럽의 침엽수를 키워 자기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기자** 스페이스젤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흥미롭습니다. 현재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김** 제품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교육과 문화 기획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 어렵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품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인데, 사실 이 안에 우주농업기술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제대로 키워낸다면 우주선 내부에서 식물을 재배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특히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주농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류가 먼 미래에 우주에 정착하려면 분명 우주농업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장기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농기자** 마지막으로 농생대 재학생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 사실 식물 분야가 주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험을 해보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했을 때 훨씬 경쟁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주농업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분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강점으로 세워서 자신의 꿈으로 펼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9,193,557,312원

기금출연 (2017. 07. 01.~2017. 09. 30.)

당기 누적금액 : 209,659,935원

| 1,000만원 이상      |            | 100만원 이상       |           | 100만원 미만            |         | 100만원 미만            |         |
|-----------------|------------|----------------|-----------|---------------------|---------|---------------------|---------|
| 기부명             | 출연액        | 기부명            | 출연액       | 기부명                 | 출연액     | 기부명                 | 출연액     |
| 정윤희(임학 56)      | 50,000,000 | (주)다원케미칼       | 8,400,000 | 박승재(농공학 73)         | 300,000 | 강상호(학술림)            | 150,000 |
| (제)카길에그리퓨리나문화재단 | 30,000,000 | (주)에니원         | 8,000,000 | 송인홍(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300,000 | 우재성(산업인력개발학 05)     | 150,000 |
| 아수일 장학회         | 30,000,000 | 윤철혜(농생명공학부 교수) | 8,000,000 | 이삼규(농장)             | 300,000 | 한진호(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 150,000 |
| 대한사료주식회사        | 28,000,000 | (주)뉴보          | 6,500,000 | 최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300,000 | 이기철(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 150,000 |
| (주)진영에스티        | 10,000,000 | 한성T&E          | 3,000,000 | 후원자00084            | 300,000 | 김대위(연구행정실)          | 90,000  |
| 김완배(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10,000,000 | 서울신문사          | 3,000,000 | 강문성(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9,990 | 서민영(수목원)            | 60,000  |
|                 |            | (주)블루비에스       | 3,000,000 |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9,990 | 하기호(학술림)            | 60,000  |
|                 |            | 송강산업(주)        | 2,400,000 | 송영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9,990 | 류준구(기획실)            | 30,000  |
|                 |            | 평한농            | 2,000,000 |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9,990 | 손창은(학술림)            | 30,000  |
|                 |            | 후원자00065       | 1,249,995 | 최인규(산림과학부 교수)       | 249,990 |                     |         |
|                 |            | 김천홍(농업교육과 87)  | 1,000,000 | 최진웅(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9,990 |                     |         |
|                 |            | 김용환(농화학 77)    | 1,000,000 | 김상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40,000 |                     |         |

##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 건립기금 출연 소식

###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761,050,000원

기금출연 (2016. 04. 01~2017. 09. 30.)

출연 합계 : 761,050,000원

| 기부명                 | 출연액         | 기부명                | 출연액       | 기부명                 | 출연액       |
|---------------------|-------------|--------------------|-----------|---------------------|-----------|
| (주)엘지화학(박진수)        | 500,000,000 | 이남호(임산기공학 78)      | 3,000,000 | 백명기(농생명공학부 교수)      | 1,000,000 |
| 후원자 75-2            | 100,000,000 | 고성운(유체공학·에너지공학 82) | 3,000,000 | 농학과60 입학동기회         | 500,000   |
| 정윤희(임학 56)          | 50,000,000  | 이혜숙(식품공학 85)       | 200,000   | 정동천(농학 71)          | 500,000   |
| 최윤재(농생명공학부 교수)      | 30,000,000  | 하종규(농생대 명예교수)      | 200,000   | 정봉진(농학 73)          | 200,000   |
| 이병일(농생대 명예교수)       | 20,000,000  | 김용상(농화학 83)        | 150,000   | 강준석(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500,000   |
| 정철영(농산업교육과 교수)      | 10,000,000  | 이희석(농생물학 57)       | 1,000,000 | 후원자 75-1            | 500,000   |
| 안경구 조은종묘(원예학 87)    | 10,000,000  | 이해안(농생물학 72)       | 1,000,000 | 유영희(농가정학 76)        | 500,000   |
| 강규영(농화학 68)         | 500,000     | 신동소(농생대 명예교수)      | 1,000,000 | 임용재(농업경제학 67)       | 100,000   |
| 류관희(농생대 명예교수)       | 2,000,000   | 서돈영(농화학 63)        | 300,000   | 김동진(산림과학부 14 김성혁 父) | 30,000    |
| 이석해(식물생산과학부 교수)     | 5,000,000   | 정지웅(농생대 명예교수)      | 1,000,000 | 김재하(축산학 56)         | 100,000   |
| 윤해정(산림과학부 교수)       | 1,250,000   | 손두식(농생대 명예교수)      | 1,000,000 | 박준호(환경재료과학 02)      | 20,000    |
|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5,000,000   | 임경순(농생대 명예교수)      | 1,000,000 |                     |           |
| 유상렬(농생명공학부 교수)      | 5,000,000   | 윤철혜(농생명공학부 교수)     | 1,000,000 |                     |           |
| 이학래(산림과학부 교수)       | 1,000,000   | 농수익대 경남동문회         | 1,000,000 |                     |           |
| 강병철(식물생산과학부 교수)     | 1,500,000   | 김진경(농가정학 80)       | 1,000,000 |                     |           |

## [동문동정]

- ▶ **신응남** 동문(임학 70)이 회칙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한 후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 **서재형** 동문(농학 82)이 7월 10일에 신입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염태영** 동문(농화학 80)은 7월 13일 제2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 ▶ **김재현** 동문(임학 84)은 7월 17일에 산림청장에 임명되었다.
- ▶ **남재철** 동문(농학 79)은 7월 17일에 기상청장에 임명되었다.
- ▶ **이수만** 동문(농공학 71)이 7월 20일에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위원회가 수여하는 '2016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하였다.
- ▶ **김택현** 동문(농업교육 78)이 8월 7일 에스와이패널그룹 건설사업부(빌드)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교수동정]

- ▶ **최인규 교수**(산림과학부)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에 임명되었다.
- ▶ **강동현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
- ▶ **손영환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장에 임명되었다.
- ▶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농학도서관장에 임명되었다.



▶ **Cecile Segonzac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2017년 8월 18일에 '2017년 창의선도 신진연구자'로 선정되었다.



▶ **윤희연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2017년 8월 18일에 '2017년 창의선도 신진연구자'로 선정되었다.



▶ **양태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2017년 9월 26일 금산의 세계인삼엑스포와 고려인삼학회에서 Journal of Ginseng Research에 게재된 우수 논문으로 고려인삼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이용환 교수**(농생명공학부)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미국식물병리학회 총회에서 펠로우에 선임되었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신헌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유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 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 [동창회 소식]

### ▶ 2017년 2학기 상록재단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17년 8월 23일 11시에 모교 75-1동 203호 대강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상록문화

재단 2017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장학금수여식에서는 총 4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87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하중규 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장학금수여식

에서는 류관희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장판식 연구부학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일성화학 대표 이자 동창회 고문인 정윤환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학부장학생을 대표하여 김요한(농업·자원경제학 11) 학생이 답사를 했으며, 이순형장학금을 수여받은 최태준 학생의 감사 인사말이 있었다.

상록문화재단은 서울대농생대동창회원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장학사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포상사업과 학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